



전북경찰청, 봄철 교통안전시설 일제정비

전북지방경찰청은 봄철을 맞아 노후·훼손된 교통안전시설과 법령에 맞지 않게 설치된 시설물 개선을 위해 오는 5월 22일까지 6주간에 걸쳐 일제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일제정비 대상은 도내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16만5313개(신호기 2634개, 안전표지 11만3839개, 노면표시 3만3430개, 횡단보도 1만5410개)다. 이 기간 노후·훼손되거나 기준에 어긋난 교통안전시설과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 도로관리청과 협력해 개선, 보완할 계획이다. /뉴스



남원시통합사례관리사, 선제적 복지 추진 호응

남원시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역량강화를 위해 업무지원을 활발하게 추진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통합사례관리 업무지원은 희망복지지원단 전문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사례관리 담당자들과 연계를 통해 사례관리 실행력을 높이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추진 중이다. 통합사례관리사들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사례회의의 참석, 슈퍼비전 제공, 복지사각지대 가정방문 동행 및 사례관리 전산입력 매뉴얼 사용법 교육과 민간자원 활용을 위한 자원관리 등 사례관리 전반에 관한 지도와 소통을 강화하여 복지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위기를 극복하는 온정의 손길

전주시 12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코로나19 극복성금 1050만원 시에 기탁

전주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들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 지난 14일 전주시내 12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1050만원을 전주시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저소득층을 돕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행업체가 실시할반으로 모금해 마련했다. 시는 전달된 성금을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해 취약계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계자는 "비록 어려운 경제상황이지만 코로나19로 더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시민들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며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돼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성금모금에 참여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주)도우, (주)삼우, 에스티엔티(주), (유)우진환경, (주)청진, (사)전북노동복지센터, (유)서희산업, (유)크린월드, (주)사담과환경, 호남RC(주), (주)삼부, (유)전주시생활자원재활용센터 등이다. /김윤상 기자



전함께하는 전북농협, 이웃사랑 반찬나눔 행사

전북농협(본부장 박성일)과 농협 군산시지부(지부장 조인갑), 농가주부모임 전북연합회(회장 이경자)는 지난 14일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긴 배추김치, 돈육매추리알장조림, 진미채 등 3종류의 반찬을 직접 만들어 "이웃사랑 반찬 나눔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준비된 반찬은 군산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흠뻑어르신 및 취약계층 150가구에 전달됐다. 조인갑 지부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부활동이 제한되어 끼니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저소득 어르신들 및 취약 계층을 위해 반찬나눔 봉사활동을 준비하게 됐다"며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나눔 봉사에 참여해주신 농가주부 회원분들께 감사드리며 받으신 분들도 맛있게 드시고 힘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봉사에 참여한 농가주부모임 회원은 "가족을 위한 음식이라 생각하며 정성껏 만들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박성일 전북농협 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따뜻한 봄 햇살과 만개한 예쁜 꽃들을 돌아볼 여유도 없어진 것 같아 아쉽지만 건강이 제일 먼저라고 생각한다. 경제가 위축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힘든 상황이지만 지역사회를 먼저 생각하고 농업인 실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인 반찬나눔 찬찬찬(찬찬)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예수병원, 인터벤션 수술실 확장 개소

예수병원이 인터벤션(하이브리드) 수술실을 확장 개소하고 디지털 혈관촬영장비 '아주리온(Philips Azurion 7M20)'을 도입해 지난 14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번에 도입한 최첨단 디지털 혈관 촬영장비인 '아주리온'은 20인치 대형 디테터를 장착해 혈관질환의 진단과 심혈관, 뇌혈관 및 모든 부위의 혈관 중재시술을 위한 고해상도의 영상 제공으로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며 방사선 피폭선량을 기존 장비의 50%까지 줄여 환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김철승 병원장은 "2009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수술실 내에 인터벤션 센터를 개소한 예수병원이 이번에 한층 업그레이드된 첨단 디지털 장비와 시설을 보강해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2세대 인터벤션 수술실로 확장 개소했다"고 밝혔다. 예수병원은 인터벤션(하이브리드) 수술실에는 전체 3대의 디지털 혈관촬영 장비뿐만 아니라 올해 예수병원 가족이 된 우리나라 북부 인터벤션의 권위자인 김윤환 교수(고려



대학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역임)를 보강해 이전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혈관질환의 검사, 중재적 시술, 폭 넓은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환자와 보호자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터벤션(하이브리드) 수술실은 환자의 이동 없이 원스톱으로 한 곳에서 방사선중재시술과 전통적 수술을 통합해 신속하게 각종 혈관질환과 고난이도 혈관시술, 수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수술 후 통증이 적고 회복 속도가 빨라 환자의 합병증 발생률, 사망률을 낮추는 장점이 있다. /김윤상 기자



전북서부보훈지청, '4.19 혁명 60주년' 특별 사진전

전북서부보훈지청은 4.19혁명 60주년을 맞아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익산역에서 '자유, 민주, 정의를 쫓아온다'라는 주제로 특별사진전을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 학생과 시민이 중심 세력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을 기념하는 법정기념일로 올해 60주년을 맞는다. 보훈지청 관계자는 "4.19혁명은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틀을 형성한 위대한 역사다. 올해가 60주년인 만큼 불의에 항거하고 정의를 위해 희생한 민주영령들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 새겨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20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주)650-9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발행·편집인 조병성 부회장 김승곤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674	남원지사 632-3386	고창지사 563-6889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6855	임실지사 010-9642-2725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6855	진안지사 433-3064
효진지사 010-6645-9935	필북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3385	정읍지사 536-3787
	군산지사 010-6789-003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22-6157
	익산지사 659-99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남원소방서, 구급차 공백 최소화 · 응급환자 소생률 향상 위해 펌블런스 운영

남원소방서(서장 김광수)가 긴급 상황에서 출동중인 구급차의 공백을 최소화 하고 응급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해 남원시 관내 8대의 펌블런스(Pumbulance)를 운영 중에 있다. 펌블런스는 소방펌프차(Pump)와 구급차(Ambulance)의 합성어로 관내 구급차가 출동한 상태이거나 원거리 출동 등 공백이 생길 경우 소방펌프차가 구급차보다 먼저 출동에 중증응급환자를 구조하는 서비스다. 남원소방서에 따르면 현재 운영중인 펌블런스 현황으로 심정지 등 중증환자 40건, 구급대원 안전 확보 66건 등 총 106건 출동에 응급상황에 대처했다. 특히, 남원소방서는 펌블런스 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펌블런스 대원 유지격자 응급구조사, 구급교육자 배치 확대 ▲필수 구급 장비(심장충격기 등 31종) 적재 ▲맞춤형 펌블런스 구급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강종택 구조구급팀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이지만 국민들에게 사각지대 없는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